2025년 2분기 선교편지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터와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측 할 수 없었던 지난 반 년 동안의 혼란과 아픔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평안으로 지키시기며 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센타 마당 한 편에 심은 오이가 많이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수고하고 기다려주면 열매 맺을 그 날을 사모하면서 2025년도 2분기 선교 소식을 전합니다.

1. 캄보디아 상황

이곳은 우기철이 시작되었고 거의 매일 비가 오고 있습니다. 태국과의 국경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총격사건이 일어났고 국경이 봉쇄되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국경을 오가는 근로자들과 상인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문제를 국경문제로 돌리려는 정치권의 행태가 반복되고 있어서 국경문제는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국가(태국, 싱가포르, 대만, 중국 등)들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심각해 보이지만 캄보디아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질 않을 정도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코로나 시절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최근 저희가 살고있는 뿌억군 주변의 도로상황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작년 단기팀이 왔을 때에 길이 나빠서 가지 못했던 시골지역의 길들이 포장되었고 다른 군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의 변화가 복음의 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2. 학사관 이모저모

우리 마음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주제로 시작

했던 야고보서 성경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난 속에 피어나는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캄보디아의 상황에 주눅들지 않고 매일 말씀의 생명력을 경험하며 고난 가운데 소망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센타 졸업생들의 지속적인 믿음생활을 위해서 페이스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심방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삶의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생활을 이어가도록 격려하며 교제하고 있습니다. 분명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 마음에 심어진 생명의 말씀이 아름답게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쭙따뜨라우 지역교회 방문

도로공사현장

3. 지역교회와 함께 걸어가기

지난 몇 년 동안 고민해 왔던 연약한 지역교회들을 섬기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직도 복음화율이 1%에 머물러 있고 시골교회들의 상황은 자립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단들의 물질적인 공격 앞에 현

지 사역자들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시골지역이라 정녕숭배와 불교세력이 강하다 보니 사역자들의 위축된 모습은 선교사가 보기에도 힘겨워 보입니다. 사역자와 교회 그리고 성도들을 섬김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협력사역이 지역사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예배섬김, 찬양섬김, 방과 후 모임지원, 지역전도).

다시 우기철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기철 메마름으로 기다렸던 비가 온 땅을 푸르게 하고 시내와 강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갈급한 영혼들로 넘쳐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날마다 풍성히 내리기를 소망하며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2일
캄보디아 요셉비전센타에서 김경대 한신숙 선교사 올림

♤기도제목
♤ 지역교회를 섬기는 일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함이 있기를
♤ 학사관 학생들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 센타 졸업생들이 믿음의 인내와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 파송교회, 후원교회와 후원자들에게 선교의 기쁨이 넘치기를
♤ 단기선교를 준비하는 여수성도교회 단기팀과 일정을 위해서
♤ 연로하신 부모님(김선교사)의 삶 속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